

특집

동아시아의 畫題

중국 근대 ‘孟母斷機像’ 연구

이성례

I. 머리말

孟子(BC. 371년경~BC. 289년경)는 전국시대 사상가이자 공자와 더불어 유학 사상의 체계를 세운 인물이다. 그의 어머니는 자식 교육의 일인자인 ‘母教一人’으로 알려져 있다.¹ 중국에서孟母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 전통시대에는 母道와 婦功의 중요성을 체현한 존재로 표상되었다. 하지만 근대 국민국가 수립·정착하는 시기에는 맹모에게 새로운 의미가 더해져서, 그를 新國民을 양성하는 女國民의 모델로 주목하게 되었다. 일례로, 중국 근대교육의 선구자 차이위안페이(蔡元培, 1868~1940)가 쓴 『中學修身教科書』에서 孟母教子の 내용이 언급된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교과서에서 맹모의 일화를 소개했고, 대표적인 여성 잡지인 『女子世界』, 『婦女雜誌』에서도 맹모를 본받아야 할 어머니로 묘사했다. 또한, 맹모의 교육 방침을 보여주는 수많은 고사가 회자되었는데, 그중에서도 ‘孟母斷機’는 전통시대는 물론 근대기에도 시각 이미지로 재현되곤 했다. 그 원류는 漢代 畫

李聖禮

경기대학교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
한국회화사

* 필자의 최근 논저: 「한국 근대기 전시주책의 출품 배경과 표상」, 『미술사논단』43, 2016. 12; 「근현대 미술에서 만나는 숲과 나무」, 『한국의 미술과 산림문화』, 숲과문화연구회·산림청, 2016; 「한국 근대 시각문화의 ‘현모양처(賢母良妻)’ 이미지」,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2.

1 2007년에는 中華母親節(중국 어머니의 날)을 맹자가 태어난 음력 4월 2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를 기념하는 것으로, 맹모가 존경받는 어머니의 師表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맹모의 교육 방침을 보여주는 고사는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맹모단기 고사로는 ‘孟母斷機’, ‘斷機之戒’, ‘斷機之教’ 등이 있고, 孟母教子, 孟母之教와 연관된 고사는 ‘三遷之教’, ‘孟母三遷’, ‘三遷擇鄰’, ‘孟母擇鄰’, ‘孟母無誑’, ‘買肉啖子’, ‘孟母訓子’ 등이 있다.

像石에서부터 확인되며, 한대 이후 즐겨 그려진 畫題로서 시대를 아우르는 시각 문화적 표상물이자 여성 인물화의 주제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맹모단기는 중국 문학, 국문학, 한문학, 중국학, 역사학, 철학, 교육학, 여성학 등 학제 간 연구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² 그러나 그동안 미술사학계에서는 맹모와 관련한 모티프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심층적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근대기에 제작된 孟母斷機像을 고찰하고자 한다. 짜던 베를 칼로 잘라 아들에게 학업 정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내용을 형상화한 시각 이미지를 토대로 중국 근대기의 시대적 정황과 여성에게 부여된 직무 및 태도를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맹모단기 고사와 맹모 담론에 관한 학술적 이해를 높이는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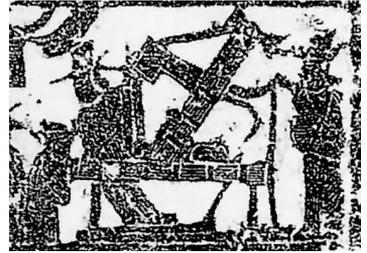
II. 孟母斷機像의 형성과 전개

‘맹모단기’는 西漢 초기인 기원전 150년 전후에 韓嬰이 쓴 『韓詩外傳』에서 최초로 출현한다. 맹자가 어린 시절에 글을 외우던 중, 갑자기 외우는 것을 중지했다가 다시 반복하자, 아들 옆에서 베를 짜던 어머니는 그가 글을 잊어버렸음을 알고는 칼로 베를 끊으며 아들을 훈계했고, 이를 계기로 맹자가 글 외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³ 이후 劉向(BC. 77년경~BC. 6년)은 『列女傳』에서 어려서부터 집을 떠나 유학하고 있던 맹자가 어느 날 학업을 중단하고 모친을 찾아왔는데, 베를 짜던 어머니가 기별 없이 돌아온 아들을 향해 베를 칼로 자르며 꾸중했고, 깨달음을 얻은 아들이 학문에 정진했다는 내용으로 각색했다.⁴ 공부를

2 중국 문학, 한문학, 중국학, 역사학, 교육학, 철학 등의 분야에서는 맹모의 교육 방침을 담은 고사성어나 맹모의 일화를 주제로 삼아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劉向의 『列女傳』을 옮긴 이숙인의 『열녀전』(예문서원, 1996)을 비롯하여 성원경의 『고사성어(故事成語): 맹모삼천(孟母三遷)·관포지교(管鮑之交)』(1999), 송정화의 『신화 속의 처녀에서 역사 속의 어머니로』,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한규무의 『조선시대 여인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 황진이·어우동·논개 그리고 맹모를 중심으로』(2005) 등에서 맹모가 언급되었다. 또한, 김세환의 『맹자 읽기』(세창미디어, 2013), 신정근의 『맹자여행기』(h2, 2016) 등의 저서에서도 맹모가 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3 “孟子少時誦 其母方織 孟輟然中止 乃復進 其母知其誼也 呼而問之曰 何爲中止 對曰 有所失復得 其母引刀裂其織 以此誡之 自是之後 孟子不復誼矣”라고 했다. 韓嬰, 임동석 역주, 『한시외전』(예문서원, 2000), pp.567-568.

4 “孟子之少也 旣學而歸 孟母方績 問曰 學何所至矣 孟子曰 自若也 孟母以刀斷其織 孟子懼而問其故 孟母曰 子之廢學 若吾斷斯織也”라고 했다. 劉向, 이숙인 옮김, 『열녀전』(예문서원, 1996), pp.68-74.



1
 <맹모단기> 장면
 東漢 末期
 棗莊市 山亭區 桑村鎮
 西戶口 사당의 화상석

2
 <맹모단기> 장면
 東漢 末期
 滕州 造紙廠 사당의 화상석

소홀히 하고 되돌아온 아들에게 학문은 베를 짜는 것처럼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훈계한 것은 學文 精進과 克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가로 세로로 날실과 씨실을 촘촘하게 엮어낸 베와 이러한 제작 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베틀은 학문의 맥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상징 도구로 접근된다.

맹모단기는 시각 이미지로도 형상화되었으며, 그 원류는 한대 화상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상석 중에서 방직 장면을 모티프로 한 것은 크게 曾參의 어머니인 曾母의 曾母投杼 고사를 형상화한 이미지, 맹모단기 이미지, 방직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형상화한 이미지로 구분된다. 이중 맹모단기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는 자오좡(棗莊) 山亭區 桑村鎮 西戶口 사당의 화상석,⁵ 텡저우(滕州) 造紙廠 사당의 화상석²과 같이 東漢 말기에 제작된 예가 있다.

먼저, 자오좡 사당의 화상석을 보면, 화면에는 織機가 한 대 보이고, 그 위로 몸을 옆으로 기울이고 앉아있는 여인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을 들어 올려 여인을 바라보는 아이가 확인된다. 여인은 아이를 향해 손을 뻗고 있으며 아이는 왼손으로 땅을 짚고, 오른손은 반쯤 들어 여인의 뻗은 손에 호응하고 있다. 아이의 위쪽으로 커다란 물건이 하나 보이는데, 이는 직기의 부품 중 하나다. 다음으로 텡저우 조지창 사당 후벽의 화상석에도 직기가 한 대 보이고, 여인이 기계의 핵심 부품인 북을 든 채 그 위에 앉아있다. 그는 몸을 틀어서 뒤쪽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고, 아이는 상체를 굽힌 자세로 꾸중을 듣는 모습이다. 두 이미지는 공통으로 직기 위에 앉아있던 여자가 아이를 꾸짖는 장면을 표현했다.⁵

‘단기’ 즉, 짜던 베를 끊어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설정은 베를 끊어 남편의 학문 정진을 권유한 동한 시대 樂羊子 부인의 예와 같이 후대에도 확인된

5 陳長虹, 「紡織題材圖像與婦功: 漢代列女圖像考之」, 『考古與文物』 2014年 第1期(西安: 陝西省考古研究所, 2014), p.60.

다.⁶ 희곡에서도 빈번히 다루어졌는데, 元代의 〈守貞節孟母三遷〉이라는 雜劇이나 근대 京劇인 〈孟母三遷〉, 산시(陝西)의 전통극 秦腔 〈三遷教子〉 등이 맹모단기 고사를 줄거리에 포함하고 있다. 明代 沈受先의 〈商輅三元記〉는 〈斷機記〉라고도 불리는데, 이 또한 秦雪梅가 실을 끊어 자식이 학업에 정진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清代 陳二白이 쓴 〈雙官誥〉 傳奇에도 접인 碧蓮이 절개를 지키며 자식을 교육해父子가 모두 관직에 임명되어 官誥를 받았다는 줄거리가 담겨 있다. 이것은 후에 〈三娘教子〉라는 이름으로 각색되었고, ‘단기’와 관련한 극 중에서 가장 유행했다.⁷ 이러한 예는 ‘맹모단기’ 혹은 ‘단기교자’가 현명한 어머니의 교육 방침을 드러내는 일화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식에 대한 맹모의 생각은 『한시외전』에 실린 또 다른 일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시외전』에는 맹모가 이웃집에서 돼지를 잡고 있는 연유를 묻는 아들에게 무심결에 너에게 주려고 그런다고 답하고는, 이내 후회하며 자신이 임신 중에 바른 자리가 아니면 앉지 않고, 바르게 썬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태교했다고 말한 대목이 있다.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삼갔던 이유는 오로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인데, 이처럼 임부의 몸가짐이 장래에 태어날 아이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중국 창사(長沙)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帛書에서도 확인된다. 秦代에서 한대 초기에 기술된 것으로 보이는 백서 『胎產書』는 “임신 3개월은 태아의 몸이 만들어지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이때 임신부의 행동거지, 보고 듣는 것이 모두 태아의 발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三月始胎 果隨宵效 當是之時 未有定義(義) 見物而化).”라고 적고 있다.⁹ 이는 『열녀전』에서 주나라 文王의 어머니 太任이 문왕을 임신했을 때,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고, 귀로는 음란한 음악을 듣지 않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태교하여 문왕이 태어나면서부터 知德이 뛰어났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 있다.¹⁰ 태아가 유교적인

6 약양자의 아내가 베를 끊어 남편이 다시금 학업에 정진하고 덕을 닦도록 권한 행위에 대해 明代의 陳士元은 감탄하며 “取譬甚切 豈亦慕孟母之懿距而效法者歟”라고 말하기도 했다. 陳長虹, 위의 논문(2014), p.66.

7 陳長虹, 『俗世理想, 從來如此: 四川大學博物館藏民國花轎研究』,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2年 第2期(成都: 四川大學, 2012), p.138.

8 “孟子少時 東家殺豚 孟子問其母曰 東家殺豚 何以爲 母曰 欲啖汝 其母自悔而言曰 吾懷妊是子 席不正不坐 割不正不食 胎教之也 今適有知而欺之 是教之不信也 乃買東家豚肉以食之 明不欺也”라고 했다. 韓嬰, 앞의 책(2000), pp.567-568.

9 周一謀, 金南一·印昌植 共譯,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법인문화사, 2000), p.164.

10 “及其有娠 目不視惡色 耳不聽淫聲 口不出敖言 能以胎教 … 文王生而明聖”이라고 했다. 劉向, 앞의 책

덕을 지니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는 데 태교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열녀전』에는 자녀 교육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한 ‘三遷之教’도 처음으로 등장한다. 현재 우리에게는 당연한 역사적 사실처럼 되어있지만, 이는 유향이 상상력을 가미하여 만든 것이다. 맹모단기와 맹모삼천의 내용은 아동용 교재로 널리 쓰인 南宋代 『三字經』에 “옛날 맹자의 어머니는 아웃을 가려서 살았네, 아들이 공부를 중단하니 벼들의 북을 끊었네(昔孟母 擇鄰處 子不學 斷機杼).”라는 구절로 수록되었고, 명대 萬曆 연간에 呂坤(1536~1618)이 편찬한 『閨範』이나 청대 康熙 연간에 다시금 편찬된 『閨範圖說』 등에서 반복 게재되었다.

또한, 맹모단기의 내용은 방식이 전통시대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들을 훈계하던 맹모는 벼 짜는 일을 그만두면 어찌 남편과 자식을 입히고 오래도록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데,¹¹ 이는 방식과 생계유지의 연관성을 잘 드러낸다. ‘남자는 밭을 갈고 여자는 벼를 짜며’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천하가 태평하다고 여겼던 인식은 원대 薩都刺(1308~?)의 『過居庸關』에서도 보인다.¹² 또한, 淸末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曾國藩(1811~1872)의 딸인 曾紀芬이 쓴 『崇德老人自訂年譜』에서도 방식이 성별에 따른 업무 분담과 집안 살림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방편으로 강조되었음이 확인된다. 年譜에서 同治 7년의 기록을 보면, 중국변은 집안에서 ‘여자는 衣食粗細, 즉 옷에 관한 일, 음식에 관한 일, 粗工, 細工 중 하나라도 빠트리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¹³ 紡績과 織造를 하여 의생활을 자급자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이 길쌈과 바느질을 성실히 행하는 것은 부녀자로서 지녀야 할 德行의 수행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는 여성의 부공을 강조한 것으로, 부공은 덕을 실천하는 행위로

(1996), pp.53-58.

11 “何以異於織績而食 中道廢而不爲 寧能衣其夫子 而長不乏糧食哉”라고 했다. 劉向, 위의 책(1996), pp.53-58.

12 ‘남자는 밭 갈고 여자는 벼 짜며 천하가 태평하여(男耕女織天下平)’라고 했다. 기태완 선역, 『遼金元詩選』(보고사, 2009), p.437.

13 중국변이 집안 여자들에게 정해준 네 가지 작업은 다음과 같다. “아침 식사 후에 반찬이나 간식, 술, 양념장 등을 만든다(음식에 관한 일). 11~1시에 실을 뽑거나 績麻한다(옷에 관한 일). 점심 후에는 바느질이나 자수를 한다(細工). 저녁 무렵인 酉刻 이후에는 남자나 여자의 신발을 만들거나 옷을 꿰맨다(粗工).” 또한, 그는 아들 曾紀澤이 결혼할 때도 편지로 당부하여 이르길 “신부가 우리 집에 오면 근검을 가르친다. (중략) 신부가 처음 오더라도 주방에 들어가 국 끓이는 법을 배워야 하고 부지런히 방직해야 하니(新婦始至吾家 教以勤儉 … 新婦初來 宜教之入廚作羹 勤於紡織)”라고 말했다. 중국변의 아내 歐陽 부인 역시 “근검에 살다 보니 주방 아궁이에 불을 때고 천과 옷을 만드는 사사로운 것을 손수 했다(居勤居儉 下廚燒竈 紡紗織布 事事躬親)”라고 전한다. 賈越雲, 『曾國藩夫妻畫像的發現及研究』, 『收藏』第219期(西安: 陝西省文史館, 2011), pp.110-111.

받아들여졌다.¹⁴

회화 작품 중에도 여성이 방직 작업에 임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예가 점점 많아졌다. 兩晉 시대에 방직 장면을 그린 그림은 주로 여성의 도덕성을 드러내거나 열녀도와 같이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긴 규범적 여성상을 대변했다. 하지만 齊梁 이후에는 그림의 양식은 유지되지만, 도덕적인 의미가 점차 퇴색되었고, 고된 노동의 흔적은 미인의 용모와 자태에 가려지게 되었다.¹⁵ 예를 들어, 백묘법으로 그린 명대 仇英의 전칭작 〈白描仕女圖〉에서도 수많은 여인 가운데 비단을 짜는 인물이 보이는데, 그는 체형이 가늘고 단아한 모습으로 그림 옆에 ‘蘇若蘭’이라 적혀있다. 소약란은 南北朝 시대 前秦 苻璉때 사람으로, 타지에 있는 남편 竇滔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비단을 짜서 廻文詩를 수놓아 남편에게 보냈고, 이를 통해 부부가 재결합하게 되었다는 고사의 주인공이다. 60명의 여인을 황권에 배열한 명대 작가미상의 〈千秋絕艷圖〉^{도3}에서도 유사한 이미지가 확인된다. 화면에서 베틀에 앉아 비단을 짜는 소약란은 가름한 얼굴형에 눈썹이 버들잎 같이 생겼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으며, 좁은 어깨는 처져 있고, 청순하고 단아한 모습이다.

맹모단기와 관련해서는 晉의 才女였던 左九嬪이 〈孟母斷機〉를 본 후 화찬을 남긴 바 있으며, 劉宋의 화가 謝稚와 南齊의 王殿이 〈孟母圖〉와 〈列女母儀圖〉를 그렸고, 원대의 王恽, 명대의 廖道南도 맹모를 모티프로 한 그림에 題記를 남겼다고 전한다.¹⁶ 이밖에, 석각 자료로서 金代 大安 3년(1211) 孟氏宗傳祖圖碑에 새겨진 〈孟子聖迹圖〉도 확인된다. 〈맹자성적도〉는 맹자의 어린 시절부터 학문의 연원, 유세의 장면, 핵심 사상을 두루 보여주는 이미지로,¹⁷ 여기에도 맹모단기 장면이 형상화되었다.^{도4} 화면 속 맹모는 베틀에 걸린 베를 향해 칼을 겨누는 채 아들을 바라보며 꾸짖고 있고, 拱手 자세를 하고 몸을 숙인 어린 맹자는 자신의 잘못을



3
작가미상
〈千秋絕艷圖〉부분
明代, 비단에 채색
전체 29.5×667.5cm
中國國家博物館

14 鄭玄(127~200)이 『禮記』 「昏義」 편의 주에 말하기를, 부녀자의 덕은 정결과 순종을 이르고, 부녀자의 말은 잘 응대하며 격에 맞는 것을 이르며, 부녀자의 용모는 순하고 정숙한 것을 이르고, 부녀자의 일은 실을 갖고 삼베 짜는 것을 이른다(禮記昏義注曰 婦德貞順也 婦言辭令也 婦容婉婉也 婦功絲麻也)라고 했다. 진례 역음, 이연승 옮김, 『한대사상사전』(그물, 2013), p.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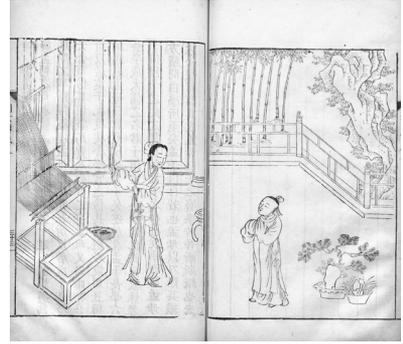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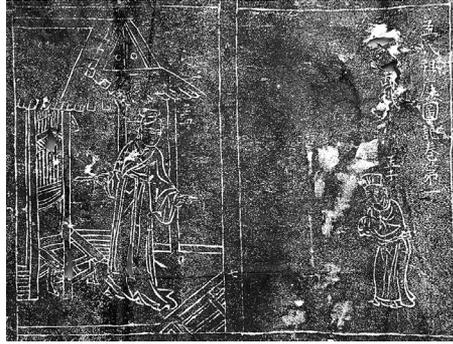
15 陳長虹, 앞의 논문(2014), p.67.

16 陳長虹, 위의 논문(2014), pp.66-67.

17 금대 대안 3년에 새겨지고, 명대 洪武 6년(1373)에 세워진 孟氏宗傳祖圖碑는 孟廟에서 맹자의 아버지 孟激의 신위를 모신 啓聖殿에 있다. 신정근, 『맹자여행기』(h2, 2016), pp.312-318.

4

〈孟子聖迹圖〉 부분
孟氏宗傳祖圖碑
1211년



5

仇英
『鄒孟軻母』 삽화
明代
『列女傳』에 수록

반성하는 모습이다. 또한, 명대 汪道昆이 撰한 『열녀전』의 『鄒孟軻母』에 구영이 그린 삽화^{도5}가 보이며, 명대의 『규범』, 청대의 『규범도설』에 실린 『孟母三遷』 삽화^{도6} 청대 乾隆 연간에 주로 활약했던 화가인 康濤의 〈孟母斷機教子圖〉(1763)^{도7} 楊柳靑 목판연화 〈孟母斷機〉, 朱仙鎭 목판연화 〈孟母斷機〉 등도 맹모단기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강도의 〈맹모단기교자도〉는 구영이 그린 『열녀전』 삽화와 유사한 구도를 보여주어 주목된다. 우선 화면에는 “계미년인 건륭 28년(1763) 5월에 既濟生(강도의 호)이 西子湖頭 讀書樓에서 그리고, 글을 남긴다(乾隆二十八年歲次甲卯陽協洽奉月既濟生畫於西子湖頭讀書樓並記)”라고 적혀 있다. 또한, 화가는 그림 우측 상단에 『열녀전』에 실린 ‘맹모삼천, 단기교자’의 내용을 해서체로 썼다. 그 아래에는 맹모가 베를 끊어 아들을 훈계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고풍스럽고 수려한 외

모의 맹모와 어린 맹자, 베틀이 세밀하게 묘사되었다. 베틀 앞에서 있는 맹모는 왼손으로 짜던 베를 가리키고, 오른손은 칼을 든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 어머니를 향해 허리를 약간 숙인 채 양손을 앞으로 모은 공수 자세를 하고서 있는 아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엿보인다. 그런 아들을 지긋이

6

『孟母三遷』 삽화
清代
『閨範圖說』에 수록



7

康濤
〈孟母斷機教子圖〉
1763년, 비단에 채색
88.4×31cm
北京故宮博物院



바라보는 모친은 위엄을 잃지 않으면서도 표정에서 자애로움이 묻어난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마와 코, 턱을 하얗게 칠해 음영을 표현한 三白法이 사용되었고, 母子가 쓰고 있는 청색 두건과 맹자의 신발에 사용된 朱砂는 화면에 변화를 주었다. 화가 강도는 생전에 ‘孝敬’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전하는데, 맹모단기 고사를 모티프로 하여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투영했거나, 사람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효를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Ⅲ. 근대 孟母斷機像의 양상

앞서 살펴보았듯이 맹모와 관련한 고사 중에서도 특히 맹모단기는 한대 화상 석에서부터 그 이미지가 확인된다. 이것은 근대기에도 시각 이미지로 빈번히 형상화되었다. 본 장에서는 청나라 말기부터 근대기에 활동한 화가들이 그린 맹모단기 모티프의 그림을 비롯하여 교과서 삽화, 상업적 목적과 예술성을 의식하고 제작한 광고 포스터 月份牌, 짧은 글과 그림을 곁들인 連環畫, 가마 장식이나 담배 케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 유포된 맹모단기 이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회화 및 각종 인쇄 미술, 공예품에 나타난 맹모단기 모티프의 양식적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각 이미지 중에서는 근대 국민국가가 수립·정착하는 시기에 맹모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정황도 포착된다. 국민(新國民, 女國民) 양성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직무에 국가적 가치가 부여된 상황에서 맹모를 ‘여국민’의 모델로 주목한 것이다.

1. 女國民의 상징, 孟母

맹모는 전통시대에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어머니의 도리와 부공의 중요성을 체현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부공은 덕의 실천을 의미했고, 방직 작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부녀자로서 숭고한 덕행을 수행함을 뜻했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근대화의 여정에 있던 민국 시대에는 국민 양성과 결부되어 맹모에게 또 다른 의미가 더해졌다.

중국에서는 청일전쟁(1894~1895) 패배 이후 개혁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청나라 사회 전반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 변법자강운동(1898)

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운동은 실패로 끝났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가속화되면서 保國, 保種, 保教을 위한 국민국가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근대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창출이 선행되어야 했는데, 특히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가 새로운 국가를 담당할 국민의 양성에 주목하며, “國은 民에 의해 이루어지고 國의 주인은 民이다. 國의 모든 운명은 民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국민’은 더는 帝王의 사유재산이 아니며 국가 주권의 소유자다. 국가는 진화의 산물이며, 국민 없이 국가를 형성한 예는 세계에 없다”고 역설했다.¹⁸ 국민은 근대국가 형성을 위해 요구된 새로운 인간으로서, 그 개념은 정치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¹⁹ 공교육에서도 국민의 개념과 역할을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²⁰

이러한 국민 개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어머니’가 등장했다. 어머니의 직무에 국가적 가치가 부여된 것으로, ‘국민의 어머니’가 독립된 개체로 출현하면서 국가사상과 여권 의식이 결합하여 ‘女(子)國民’이 탄생했다.²¹ ‘여국민’이라는 어휘는 1903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유학한 10여 명의 중국 여성들이 중국 여자 유학생 조직인 共愛會를 결성할 때 선포한, “2억의 (중국) 여성을 구제하고, 그 고유의 특권을 회복하며, 모두가 국가사상을 갖추게 함으로써 여국민의 天職을 다할 수 있게 한다”는 데서 출현한다. 이때를 전후해 ‘국민의 절반’으로서의 여국민 의식이 확대되고, “천하의 흥망에 匹婦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구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²²

여자 교육에서도 국가의식, 민족의식, 애국심을 강조했다. 또한, 근대 지식의 몸에 익히는 동시에 유교의 덕목도 갖추도록 요구했다.²³ 이러한 교육 풍토에서 맹모는 모범적인 어머니의 사례로 제시되었다.²⁴ 특히 차이위안페이가 독일 유학 시절

18 千聖林, 「女國民과 國民之母사이에서: 근대중국, 여자사범학교의 성립과 그 의미」, 『歷史教育』123(2012), p.195.

19 ‘國民公會’(1903) 같은 단체명을 비롯하여 『國民報』(1901), 『國民日日報』(1903), 『國民公報』(1910) 등 ‘국민’을 命名한 예가 등장했다. 이때 통용된 국민은 公權(=參政權)을 소유하면서 平等·獨立·合群·自治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적인 개념이었다. 장운선, 「清末 ‘女國民’養成論의 展開」, 『中國近現代史研究』51(2011), p.56.

20 일례로, 차이위안페이가 편찬한 『中學修身教科書』上篇(商務印書館, 1912)의 제4장 「國家」 제5절 〈教育〉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공부시키는 목적에 대해 자녀가 自立하여 생업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훌륭한 국민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姜雪晝, 「중국 근대 교과서 생태계 연구: 인문 계열 교과서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235.

21 장운선, 앞의 논문(2011), p.56.

22 千聖林, 앞의 논문(2012), p.195.

23 姚毅, 「中國における賢妻良母言說と女性觀の形成」, 中國女性史研究會 編, 『論集 中國女性史』(東京: 吉川弘文館, 1999), pp.120-121.

24 맹모의 일화를 소개한 교과서로는 『女子新讀本』(1904), 『初等小學女子修身教科書』(1906), 『最新女子

에 쓰고,²⁵ 민국 초기에 각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된 바 있는 『中學修身教科書』에서 맹모교자, 맹모삼천은 ‘百世의 師範’으로 강조되었으며,²⁶ 이것은 학생들의 부모를 향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中學修身教科書』上篇 제2장 「家族」에서는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제1본분으로, 맹목적인 사랑은 ‘자애’가 아니라고 기술했다. 또한, 가정은 생애 첫 학교로서 선량한 가정이 사회국가 융성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맹모교자, 맹모삼천은 백세의 모범이자 본보기로서, 부모는 관대함과 엄함을 適時에 해야 하며, 가정교육의 폐해를 피하기 위해 부모가 어린아이의 모범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자녀를 위한 교육서이지만, 부모 항목을 통해 부모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²⁷

교과서에는 맹모단기의 내용이 각색되어 실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最新婦女國文讀本』에는 맹모가 자신의 머리핀과 귀걸이를 팔아 아들에게 고기를 사 먹였다는 내용이 수록되었는데,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재난에 직면했을 때 장신구를 팔고 현금을 모은 관행을 연상케 한다. 현재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 과거의 전통을 끌어들이는 것이다.²⁸ 또한, 맹모단기는 여학교에서 행해진 작문의 내용에 포함되었고, 여학교에 걸린 對聯에서도 맹모를 현명한 어머니의 예로써 제시했다.²⁹

맹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잡지 『女子世界』, 『婦女雜誌』에서도 본받아야 할 어머니로 묘사되곤 했다. 예를 들어, 「論復女權必以教育爲預備」은 여권 회복을 위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며 교육을 통해 여성이 국민의 어머니가 되고, 나라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맹모를 중국의 女豪傑이라 평했다.³⁰

修身教科書(1906), 『女子師範修身學』(1907), 『最新婦女國文讀本』(1908), 『中學修身教科書』(1912), 『中華民國 初等小學用 訂正女子國文教科書』(1913), 『女子新唱歌初集』(1914) 등이 있다. 장윤선, 앞의 논문(2011), p.68.

25 차이위안페이(蔡元培)는 일본의 제도적 근대화가 독일의 근대적 법률과 제도를 모델로 삼아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1907년에 독일 유학을 떠난다. 金尙源, 「蔡元培의 “近代” 認識과 新文化創造論」, 『中國語文論叢刊』9(2002), p.75.

26 蔡元培, 『中學修身教科書』(臺北: 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2011), p.71.

27 湯山トミ子, 「近代中國における子ども觀の社會史的考察(2): 近代的孩子觀の提起-兒童中心主義と人類主義『個』の創出-」, 『成蹊法學』第82號(東京: 成蹊大學法學會, 2015), p.15.

28 장윤선, 앞의 논문(2011), p.68.

29 예를 들어, 『龍江女學文範』(1910)에서 “맹자의 어머니와 樂羊의 아내가 천을 잘라 공부를 독려한 일을 논할 것”이라는 작문 제목이 확인된다. 또한, 龍江 여학교에는 “공자의 聖과 맹자의 賢은 모두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이고 / 복녀의 經典과 반소의 歷史는 大家로 번성했다. / 현명한 어머니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 어린아이도 국민가를 부를 수 있다네”라는 내용의 對聯이 걸렸다고 한다. 陳東原, 송정화·최수경 옮김,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박이정, 2005), p.465.

30 丹忱, 「論說: 論復女權必以教育爲預備」, 『女子世界』第3期, 1905.

「孟母斷機教子論」의 필자도 베 짜는 일을 학업에 비유하고 베를 끊는 행위를 학업 중단에 빗대어서 자식의 학문 정진을 독려한 맹모를 현명한 인물로 평가했다.³¹ 「男耕女織」을 통해 고대부터 이어진 여성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환기한 「古代婦女的責任」에서도 맹모단기 고사가 사례로 제시되었다.³² 「家庭的主師」는 아동기에 현명하고 뛰어난 어머니에게 양육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규정하고, 품행과 사상, 성격을 심어주는 어머니의 책임이 지식을 전수하는 학교 선생보다 중요하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맹모는 열악한 교육 환경이 아동에게 좋지 않은 생활습관과 품성이 생겨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는 3번의 이사도 마다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맹자가 大賢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필자는 어머니의 책임은 하루에 세 끼를 먹여 자식이 성장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유년시절에 나쁜 습관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고, 뛰어난 성격과 사상을 길러 어진 국민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자식을 키우는 데 열정을 다하고, 열악한 요인이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덕성을 회복하여 나라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길이며, 뛰어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같은 위대한 공로라고 강조했다.³³ 즉 어머니를 민족과 국가를 부흥시킬 신국민의 양육자로 인식했고, 맹모를 그 모델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2. 孟母斷機 이미지의 유형

근대기에 제작된 맹모단기 모티프의 그림은 화면에 ‘斷機教子’, ‘斷機’의 화제가 적혀있거나, 한대 화상석에서 형성된 맹모단기의 구도를 보여주는 예, 혹은 맹모단기 모티프는 유지하되 구도나 소재에서 변화를 보이는 이미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任伯年(任頤, 1840~1895), 沈心海(沈心海, 1855~1941), 馬晉(馬晉, 1900~1970)이 그린 그림을 토대로 근대기 맹모단기 이미지의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은 청 말기의 화가이면서 중국 근대 회화의 서막을 열었거나, 청 말기에 태어나 근대기에 활동한 인물들이다.

먼저, 그림에 ‘단기교자’라는 화제가 보이면서 전형적인 맹모단기 구도로 구성된 마진의 〈斷機教子圖〉(1930)를 살펴보면, 화면의 구도와 인물 표현이 명대 구영,

31 吳鳳洲, 「國文範作: 孟母斷機教子論」, 『婦女雜誌』第2卷 第11號, 1916.

32 徐公仁, 「隨意談論: 古代婦女的責任」, 『婦女雜誌』第12卷 第11號, 1926.

33 宋庵, 「須知慈母是先生: 家庭的主師」, 『婦女雜誌』第15卷 第11號, 1929.

청대 강도가 그린 그림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맹모는 베틀 앞에 서서 한 손에 칼을 든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고, 허리를 조금 굽히고 공수 자세로 서 있는 맹자는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구영과 강도가 그린 맹모보다 더 자애로우며, 입과 있는 연한 붉은색 옷도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를 더한다.

다음으로, 임백년의 <孟母教子圖>(1884)도⁸는 변형된 구도의 예로 제시될 수 있다. 임백년은 베틀과 베를 자른 칼은 그리지 않고, 아들의 책을 들고서 책장을 넘기며 질책하는 어머니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어린 맹자의 뒷모습을 그렸다. 맹모의 얼굴이 신체보다 다소 작게 그려진 데다, 아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그 표정에는 자애로움과 엄격함이 교차하고 있으며, 유려한 선으로 구불구불 부드럽게 늘어뜨린 옷 주름이 어머니의 인자한 성품을 돋보이게 한다. 먹색이 옅고 채색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채색과 수묵의 독특한 효과가 조화를 이룬 것도 주목된다.

선신하이의 <斷機教子圖>(1937)도⁹는 團扇에 그려진 그림으로, '단기교자'의 화제는 있으나 구도와 소재에서 변형된 이미지를 보이는 예다. 화면에는 맹모와 맹자 외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무릎을 꿇은 어린 맹자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맹모에게 무언가를 고하고 있는 노인이 그려졌다. 맹모는 당황스러운 듯 입을 가리고 있으며,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림에서 베를 자르는 칼은 보이지 않고, 우측에 베틀 일부가 확인된다. 선신하이는 임백년 계열과 양대 산맥을 이룬 첸후이안(錢慧安, 1833~1911) 계열의 화가로,³⁴ 가름한 얼굴형에 턱 부분을 강조한 맹모의 모습은 陳洪綬(1599~1652) 풍에 가깝고, 호리호리하게 표현된 신체에서는 費



8
任伯年
<孟母教子圖>
1884년, 종이에 채색
118×39cm

³⁴ 崔卿賢,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韓國 人物畫에 보이는 海上畫派 畫風」, 『미술사학연구』256(2007), pp.53-54.



丹旭(1802~1850)의 인물 표현 양식이 옛보인다.

맹모단기는 일반 회화는 물론, 상품 판촉과 교육의 목적으로 제작한 인쇄물이나 공예품의 장식 도안으로도 형상화되었다. 인쇄 미술 중에서는 교과서와 각종 교재의 삽화, 월분패, 연환화에서 확인된다.

교과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텍스트로서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육하도록 구성된 자료다. 학령기의 학생들은 학교에

서 교과서를 통해 맹모단기의 의미를 배웠고, 이것은 맹모

가 근대기 공교육에서도 모범적인 어머니로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향촌의 청년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평민교육에서도 맹모단기의 내용이 다루어졌다.民国 시대 당시 향촌 거주자는 총인구의 80% 이상이었고, 교육 기회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문자 교육을 비롯한 교육운동이 추진되곤 했는데, 이것은 사회개혁의 성격을 띤 救國運動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연양추(晏陽初, 1893~1990)를 위시한 개혁적 교육가들이 허베이(河北) 덩셴(定縣)에서 조직적으로 전개한 평민교육 운동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³⁵

평민교육에서도 글자를 가르치는 문자 교육이 중시되었고, 교육을 위해 문자 교육용 교재도 제작되었다. 교재에서는 삽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 삽화는 학생들이 시각 이미지를 통해 장면을 상상하도록 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어휘의 이해와 습득을 도왔다. 삽화 중에서도 맹모단기 이미지가 확인된다. 일례로, 1931년에 출판된 『農民千字課』 제3책 7과 「맹모단기」도¹⁰를 살펴보면, 커튼이 달린 실내를 배경으로 맹모와 맹자, 베틀 한 대가 그려져 있고, 인물과 베틀, 커튼에는 명암과 그림자가 표현되었다. 맹모는 인자하면서도 엄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린 맹자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공손한 태도로 말씀을 경청하는데, 뒷모습을 그려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즉 독자를 등지고 있는 모습

35 연양추가 덩셴에서 시행한 평민교육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문예교육으로 '愚'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계교육으로 '窮'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생교육으로 '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민교육으로 '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鎌田文彦, 「中國의農村教育者·晏陽初-その事跡と資料」, 『參考書誌研究』第42號(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92), p.18.

으로 그려진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교재로 글자를 배우는 학생들이 어린 맹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바뀌는 것인데, 그림에 묘사된 것처럼 가르침을 주는 교사는 엄하면서도 애정을 가지고 학생을 대하고, 배움을 얻는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진지하게 가르침을 청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삽화는 國立北京美術學校의 초대 교장을 역임한 정진(鄭錦, 1883~1959)의 주도 아래 제작되었다.

그는 학교를 사직한 1924년 이후에³⁶ 연양추가 주도한 평민교육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³⁷

또한, 달력 형식의 광고 포스터인 월분패에서도 맹모단기 이미지가 활용되었다. 월분패는民国 시대를 대표하는 광고 수단으로 근대기에 중국으로 진출한 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자사의 제품 판매를 높이기 위해 월분패를 증정품으로 제공하거나 상품으로 판매했다. 이 중에서도 담배 회사인 奉天太陽煙公司, 中國華成烟草股份有限公司의 월분패를 비롯하여, 캐나다 제약회사인 韋廉士醫生藥局(Dr. Williams medicine company), 포목점 安東縣司義和綢緞莊 등에서 제작한 광고물에서 맹모단기 모티프가 확인된다. 하나의 이미지는 여러 상품의 광고에 활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奉天太陽煙公司和 中國華成烟草股份有限公司의 월분패는 세즈광(謝之光, 1900~1976)이 그린 맹모단기 이미지를 같이 사용했다. 베틀 앞에서 있는 어머니의 손에 같이 쥐어져 있고,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10
鄭錦
「孟母斷機」 삽화
1931년
『農民千字課』第3冊에 수록

36 정진은 량치차오(梁啓超)의 추천을 통해 교육부에 진입한 인사로, 일본의 京都市美術工藝學校와 京都市立繪畫專門學校에서 공부했고, 제1회 文部省美術展覽會(1907)에서 중국인 최초로 입선한 바 있다. 그는 귀국하여 교육부 총무청 편찬소 교과서편집원이자 베이징 고등사범학교 도화수공과 교원으로 근무했다. 1917년 가을에 국립 미술학교 설립 준비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1918년 4월, 國立北京美術學校를 창설하여 초대 교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北洋軍閥政府의 통치가 혼란한 상황에서 교내 임금 체불 문제와 학내 구성원들 간의 알력 다툼이 증폭되면서 1924년 4월에 학교를 떠나게 된다. 이보연, 「중화민국 전기 미술정책과 미술학교의 대응 발전(1912~1928)」, 『미술사논단』42(2016), p.234.

37 李炳柱, 「平民教育促進會의 平民教育運動」, 『中國近現代史研究』1(1995), p.88.

태도를 반성하는 어린 맹자를 그린 전형적인 구도다. 奉天太陽煙公司 월분패¹¹는 그림의 우측 하단에 담배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 넣고, 그림 밑에 白馬牌 담배와 足球牌 담배를 한번 피워보라고 권하는 “請吸白馬牌 足球牌香煙”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中國華成煙草股份有限公司의 월분패는 金鼠牌 담배와 美麗牌 담배를 선전했고, 맹모단기 장면의 좌측 하단에 담배를 그려 넣었다. 韋廉士醫生藥局的 월분패¹²는 항즈잉(杭稚英, 1901~1947)이 그린 것으로, 맹모단기 모티프는 가져오되 구도와 소재, 배경에서 변형된 장면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이미지와 비교하여 모자의 표정이 밝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한 손에 책을 든 어린 맹자의 표정에는 장난기와 천진난만함이 가득하고, 우아한 자태의 어머니 역시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뒤편에서 이들을 지켜보며 웃고 있는 사내아이 둘도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배경도 실내가 아닌 아름다운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있는 정원이다. 인물의 표정과 자세, 배경에서는 맹모단기가 연상되지 않지만, 화면 속 인물들이 모두 바닥에 놓인 가위 한 자루와 가위에 잘린 비단 조각을 바라보는 광경은 이것이 맹모단기 모티프가 변형된 것임을 암시한다. 화면 아래에는 韋廉士醫生藥局에서 출시한 약 ‘Pink Pills for Pale People’과 ‘PINKETTES’의 광고가 있다.

11
謝之光
〈奉天太陽煙公司 월분패〉
民國

12
杭稚英
〈韋廉士醫生藥局 월분패〉
民國

이밖에 고사나 이야기를 여러 폭의 연속 그림으로 표현한 연화화에서도 맹모단기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야기와 그림을 결합한 연화화는 교육 및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제작되곤 했는데, 맹모단기의 내용을 담은 연화화는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판되었다. 일례로, 遼寧畫報社에서 출판



한 『孟母擇隣』(1957)¹³을 보면, 표지는 맹모단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인 맹모가 아들 앞에서 베를 끊는 광경을 컬러로 인쇄했고, 속지는 줄거리를 담은 글과 이미지를 흑백 인쇄했다. 표지화에 나타난 맹모는 몹시 화난 표정으로 베를 끊고 있으며, 다급히 달려와서 모친의 팔을 잡는 맹자의



13
『孟母擇隣』 표지
1957년
遼寧畫報社 출판

모습도 상당히 역동적이다. 눈썹을 치켜뜨고 매서운 눈매로 베들에 걸린 베를 노려보며 이것을 끊어 버리는 어머니나 모친을 말리기 위해 머리를 휘날리며 달려오는 아들의 표정과 동작이 과장되어 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실이 툭 끊어지면서 와르르 풀려버린 모습도 강조하여 묘사했는데, 이 같은 표현은 서사성을 부각한 연화화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예품의 장식 도안으로는 민국 초기에 제작된 꽃가마(花轎)³⁸에서 활용된 예가 확인된다.¹⁴ 꽃가마는 혼례를 치르기 위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갈 때 사용했고, 옛 풍속에서는 처음 혼인하는 여자만 탈 수 있었다. 가마 정면은 트여 있고 나머지 세 면은 막힌 구조로, 가마 지붕 안쪽에 설치된 비단 轎簾이 신부가 자리한 내부가 노출되지 않게 했다.³⁹

14
〈花轎〉
民國 初期, 나무
길이 1.01m, 너비 1.05m
높이 2.02m
四川大學博物館

14-1
〈斷機教子〉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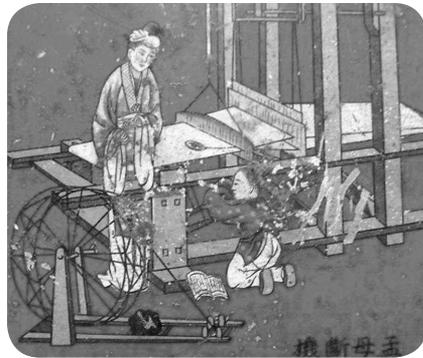
38 四川大學博物館 민속전시장에 진열된 花轎는 나무로 만들어진 穿斗式 가마로, 양쪽에 4m 길이의 가마채가 고정되어 있다. 가마는 정방형으로 길이 1.01m, 너비 1.05m, 높이 2.02m이며, 木刻, 彩扎, 玻璃畫, 주칠과 금박장식 등으로 장식되었다. 陳長虹, 앞의 논문(2012), p.134.

39 가마 지붕 안쪽에 설치된 비단 轎簾이 위아래로 걸쳐 있는데, 교련 위쪽에는 '장원급제', 아래쪽에는 '全家福'이 수 놓여 있다. 막힌 세 면에는 창문이 있지만, 모두 유리로 밀폐되었고, 유리에는 彩扎을 이용하여 '王母壽', '玉祖壽', 장원급제하여 말을 타고 거리를 행진하는 광경을 담은 '狀元打馬遊街', '어르

가마의 좌·우측 난간에는 覆瓦 구조의 유리공예가 2층으로, 총 12장면이 보인다. 이중 위층 좌측에는 〈天河配〉, 〈三難新娘〉, 〈長生殿〉 속의 〈乞巧〉 일부 장면이 있고, 우측에는 〈紅綃姻緣〉, 〈斷機教子〉, 〈拜新月〉이 있다. 제한된 공간에 고사의 모든 줄거리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기에 고사별로 특정 장면이 표현되었다. ‘단기교자’ 장면은 집안과 집 밖을 구분하여, 화면 좌측에는 집안에서 베를 짜는 맹모가 있고, 집 밖에는 뒤편에 커다란 파초 나무가 보이며, 어린 맹자가 집을 등지고 화면 우측을 향해 걷는 광경이 형상화되었다. 어머니께 혼나고 위축된 심정을 반영한 듯 몸을 움츠린 모습이다.

맹모단기는 휴대용 담배 케이스(香烟盒) 같은 일상용품의 도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도15} 담배는 민국 시대에 중요한 기호품의 하나로, 담배를 담는 케이스도 언제나 흡연자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었다. 곁에 두고 쓰는 친밀한 물건이다 보니 도

안에서 소유한 사람의 취향과 개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속재로 만들고, 뚜껑을 위아래로 여닫는 형태의 케이스는 빨간색으로 바탕을 칠하고 그 위에 맹모단기 장면을 그려 넣었는데, 앞서 살펴본 세즈광이 그린 월분패와 구도는 물론, 맹모와 맹자의 자세, 옷 색깔까지 동일하다. 하나의 도안이 일상용품에도 두루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15
〈孟母斷機香烟盒〉
民國, 銅
10×12cm

IV. 맺음말

중국 근대 맹모단기상은 일반 회화를 비롯하여 교재와 교과서 삽화, 월분패, 연화화 등의 인쇄 미술, 공예품의 장식 도안 등으로 형상화되었다. 일반 회화에서는 그림에 ‘단기교자’, ‘단기’의 화제가 적혀있거나, 현대 화상석에서 형성된 맹모단

신의 생신 축하 장면’ 등이 표현되었다. 이 같은 이미지는 ‘모든 선행 가운데 효가 가장 으뜸(百善孝爲先)’이라는 교훈과 ‘첫날밤 촛불을 밝혔을 때, 과거에 급제했을 때(洞房花燭夜, 金榜題名時)’와 같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형상화한 것이다. 陳長虹, 위의 논문(2012), p.134.

기의 구도를 보여주는 예, 또는 맹모단기 모티프는 유지하되 구도나 소재에 변화를 준 이미지가 확인되었고, 인쇄 미술과 일상용품에서도 맹모단기 모티프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시각 이미지 중에는 ‘맹모단기’라는 중국인에게 친숙한 고사를 통해 근대화의 여정에서 강조된 국민 양성과 결부하여 맹모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정황도 파악된다.

근대기에 제작된 맹모단기상은 그동안 미술사학적 관점에서 학술적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맹모단기’를 통해 화제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을 시도해보았다. 맹모단기 도상의 연원은 중국이지만, 근대기에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도 시대의식을 담고 형상화되곤 했는데, 향후 맹모단기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동아시아 미술사의 비교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주제어 keywords

孟母斷機像 images of Mencius' mother cutting cloth from a loom, 孟母 Mencius' mother, 畫題 subject of painting, 中國近代 Modern China, 女國民 Female Citizens

투고일 2017년 7월 28일 | 심사일 2017년 9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7년 10월 16일

잡지

『婦女雜誌 *Funü Zazhi*』『女子世界 *Nüzi Shijie*』

논저

劉向 Liu, Xiang, 이숙인 옮김 Lee Sookin trans., 『열녀전 *Lienüzhuan*』, 예문서원 Seoul: Yemoonseowon, 1996.

이보연 Yi, Boyoun, 「중화민국 전기 미술정책과 미술학교의 대응 발전(1912-1928) Art Policy and Corresponding Development of Art Schools during the Early Republic of China (1912-1928)」, 『미술사논단 *Art History Forum*』42, 2016.

장운선 Jang, Yoonsun, 「清末 ‘女國民’養成論의 展開 Development of the ‘Nü guo min (女國民)’ Cultivating Theory in Late Qing」, 『中國近現代史研究 *Korean Studies of Modern Chinese History*』51, 2011.

千聖林 Chun, Sunglim, 「‘女國民’과 ‘國民之母’사이에서: 근대중국, 여자사범학교의 성립과 그 의미 Women: Female Citizens or Mothers of the Nation: the Establishment of Normal Schools for Girls and Its Meaning in Modern China」, 『歷史教育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123, 2012.

崔卿賢 Choi, Kyoungyun,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韓國 人物畫에 보이는 海上畫派 畫風 Shanghai School Brushwork Displayed in Korean Figure Paintings in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미술사학연구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256, 2007.

韓嬰 Han, Ying, 임동석 역주 Lim Dongseok trans., 『한시외전 *Hanshi Waizhuan*』, 예문서원 Seoul: Yemoonseowon, 2000.

蔡元培 Cai, Yuanpei, 『中學修身教科書 *Zhongxuexiushenjiakeshu*』, 臺北: 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Taipei: Wu-Nan Book Inc, 2011.

陳長虹 Chen, Changhong, 「紡織題材圖像與婦功: 漢代列女圖像考之 Weaving Iconography and Female Virtues: A Study on the Iconography of Exemplary Women」, 『考古與文物 *Archaeology and Cultural Relics*』2014(01), 2014.

陳長虹 Chen, Changhong, 「俗世理想, 從來如此: 四川大學博物館藏民國花轎研究 Lasting Worldly Ideals: A Study on Bridal Sedan Chairs of Republican China Collected in Sichuan University Museum」,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Journal of Sichuan University(Social Science Edition)*』2012(02), 2012.

湯山トミ子 Yuyama, Tomiko, 「近代中國における子ども觀の社會史的考察(2): 近代的孩子觀の提起-兒童中心主義と人類主義「個」の創出 Socio-Historical Study of Views on Children in Modern China(2) Advocated Views on Children in Modern China: “Child-centered Education”, “Humanity”, “Individual”」, 『成蹊法學 *The Journal of Law, Political Science and Humanities*』82, 2015.

Study on Modern Chinese “Images of Mencius’ Mother Cutting Cloth from a Loom”

Lee, Sungrye

The story of Mencius’ mother cutting cloth with a knife from a loom, a popular subject of paintings from traditional to modern times in China, is a visual and cultural symbol that cuts across the ages. Mencius’ mother embodied the importance of motherly duty and deeds in raising a child correctly in ancient times in China. Women’s good deeds signified the practice of virtue, and their diligent weaving works implied the practice of noble female virtue. In addition, weaving was a means of livelihood for many families.

Images of Mencius’ mother cutting cloth with a knife from a loom were not only used as a lesson in virtue and for educational and meditation purposes in ancient times, but were also produced in association with the cultivation of the nation (Female Citizens, New People) during China’s modernization period. In other words, the image has developed and been used according to the demands and circumstances of the era.

Modern Chinese “Images of Mencius’ Mother Cutting Cloth from a Loom” has been represented in various forms: general paintings, textbooks and textbook illustrations, calendar posters, picture storybook, printed art, decorative designs of craftwork etc.